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제197호

충청북도

의회소식

발행인 충청북도의회 의장 | 편집인 의회사무처장 | 주소 (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 전화 (043)220-5123 | <http://assem.cb21.net> (2009년 6월)



5월 6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지와 행정·혁신도시 정상추진 충북살리기 범도빈 켈기대회

개회사

첨복단지 오송 유치와 행정·혁신 도시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이 대 원 의장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우택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에
건강한 모습의 의원 여러분들을 모
시고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지역
의 민생 현안문제 해결과 활발한 의
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께 감
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세종시 등 현안
사업과 영농준비 등 당면업무 추진
에 최선을 다해 오신 집행부 관계공
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
립니다.

특히 어제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
송 집적유치와 행정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 등 지역 현안과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범도민 궐기대회를 가
졌습니다.

오는 6월말 최종입지가 결정되기
까지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155
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
집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오송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
위기상황의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
제 활성화 대책과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
랍니다.

5월은 어르신 공경과 가족 사랑을
일깨우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공동체로서 부모님 공경을 생활화하
고 우리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사전 예
방과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감

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양돈농가의 피해 최소화화 도
민 불안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
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는 9
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 안
건 처리와 현장 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짧은 회기이지만 환절기 건
강에 유념하시면서 효율적이고 보람
있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현안심의

제280회 (임시회)

충청북도의회는
5월 7일부터 15일
까지 9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였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
의에서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확대 관련 지방자
치법 개정, 충청북도·충청북도교육청 2008회계
연도 결산검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2009년도 충청북도 정부합동
감사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추진방향에 대
한 의견을 나누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
정을 협의하고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
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대하
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추진상황
에 대한 간담회와 지방의회 운영 및 결산검사 작
안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실시하였으며 진천농
협통합RPC, 괴산 연풍 조령산 체험정보마을, 충
청북도 교직원복지회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북부 영어체험센터 신축현장 등에 대한 현지확
인을 실시하고 첨단의료단지 오송 유치 및 행정
도시·혁신도시 정상추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
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 5월 7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상정된 안건 및 현안을 심의하고 있다.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계획(안)

- 회 기 : 2009. 6. 10(수) ~ 6. 19(금) (10일간)
- 의사일정

일시	부 의 안 건	비고
6월 10일 (수) (14:00)	● 개 회 식 ○ 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기 : 2009. 6. 10. ~ 6. 19(10일간) 2.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3. 기타 안건처리	
6월 11일 (목) ~ 6월 18일 (목)	● 본회의 휴회 ●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 -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 방문 -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 기타 안건처리	
6월 19일 (금) (11:00)	● 제2차 본회의 1. 부의안건 처리 2. 기타 안건 처리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 계획

의회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 주요현안 처리
행정소방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충청북도 공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기타 현안 처리
교육사회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충청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기타 현안 처리
산업경제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설문화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 기타 현안 처리

5분 자유발언

첨복단지 오송 유치 결정되는 날까지!



김범기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동북아 바이오 메디칼 허브를 목표로 앞으로 30년간 5조6천억원이 투자되어 82 조원의 생산 증가와 3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미래의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초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충북 오송유치를 위해 간담회는 물론 국회·정부·유관기관 등을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력에 의한 분산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적유치결의안 등을 채택하였으며, 도민과 함께 정부중앙청사 주변에서 대대적인 가두캠페인과 첨복단지 오송유치 염원 결의대회를 갖는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도민들의 이러한 화합과 노력으로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지선정을 '집적형 조성'으로 확정하고 10개의 평가 항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 면에서 평가항목이 타 자치단체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타 시도에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안이라고 기대하고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될 때일수록 도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충북도민의 숙원이자 충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우리도 오송에 유치가 결정되는 날까지 전도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역량을 총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립 충주의료원 정상추진을



이연구 의원 (건설문화위원회)

21만 충주시민을 포함한 40여만 명의 도내 중·북부 및 경북 일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서러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시급히 개선될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 중 하나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손가락을 닦아주지 못하면, 원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허둥거려야 하는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오는 2011년 3월 새롭게 문을 여는 충주메디칼센터 즉 도립 충주의료원의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고대하며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지난 3월 착공 예정에 있던 사업이 최근까지 착공은 커녕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다는 등 또, 아예 사업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등의 루머 속에 지역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서 이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금융환경개선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의 BTI사업제도 개선안에 따른 '금리변동위험분담 방식' 마련의 1차 개선안과 '환수범위 개선' 등 2차 개선안이 제시된 만큼 정부 측의 추가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입장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새로운 대안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억울하고 시골 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도내 중·북부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체제 전환에 따른 대책 촉구



권광택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지난 5월 1일부터 삼성 홈플러스 청주점이 24시간 영업체제로 전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형 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현으로 일하여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지난 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유사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건수가 6건에 이른다는 것만 보아도 짐작이 가는 일입니다.

먼저, 국회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중소 유통업체의 고통과 시련을 감안하시어 이미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과 영업시간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충청북도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막을 법적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현재의 상황을 수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들 대형업체로 인하여 지역의 중소 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 있는것이 현실임을 감안해 볼 때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홈플러스 사업주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막가파식 전략은 수많은 중소유통업체와 영세상인들을 한숨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적 규범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청주점 24시간 영업시간을 바꿔 종전대로 되돌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처리의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세율구간별로 각각 0.01% 인하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애인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신청절차 개선

충청북도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육발전협의회 기능 확대
- 협의회 관련분야 위원 보강
- 실무위원회 위원 보강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청명학생교육원 설치목적과 분장사무를 정함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일·숙직 근무자의 당직수당을 근무 1회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함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의 인식 향상과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시 등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수산물 등의 수출진흥을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 지원 대책 강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 농수산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어업인 등의 책무 규정 등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국가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충청북도 지식재산 종합진흥계획 수립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진흥계획의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의 인식 향상과 창출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명시 등

인터넷중독상담도 이제 맞춤 서비스 시대!

어른누리 상담콜 : 대표전화 1599-0075, 인터넷 www.ilpc.or.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의회운영위원회

제2회 추경예산안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제280회 임시회 회기 중 5월 7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제2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 하였다.

이날 심사 의결한 「제28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 주요 내용은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81회 임시회 회기 결정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

고 현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심사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개회 마지막 날인 6월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10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 현안심사 5월 7일 제281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고 있다.

행정소방위원회

현지확인으로 앞서가는 의정활동 구현

행정소방위원회(위원장 연만흠)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고 '09년 지역인재육성(RHRD)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성립전 집행과 세계대학생 아이디어 올림픽인 아이디어 챌린지 2009 추진상황, 소방직 정원증원 및 직급비율 조정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괴산조령산체험마을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보고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안치용(48

세)씨로부터 민속공예촌 및 한지체험장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통문화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정보화마을사업의 성공적 운영에 대해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하였다.

특히 충북학사 및 도, 시·군 서울사무소로 활용예정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충북회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건립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기숙사 내부시설 등의 주요 구조물을 확인하고 준공 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하는 등 현정위주의 의정활동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현지확인 5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충북회관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다.

교육사회위원회

북부권 영어체험센터 등 방문을 통한 알찬 의정활동 전개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임 현)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추진상황에 대한 간담회 등 3건의 간담회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그리고 충주학생회관 및 북부권 영어체험센터와 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다.

먼저, 5. 13(수) 열린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충청북도청명학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이어 충주학생회관 및 북부권 영어체험센터 신축현장과 충청북도교직원 복지회관을 현지방문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시설 이용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기 사업추진과 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대책 및 추진상황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성립 전예산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으로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온 행정력을 동원하고 치료용 항바이러스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현지확인 5월 13일 충주학생회관 및 북부권 영어체험센터 신축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2010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 팔 걷어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는 5월 12일 '제2 태안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연일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는 충남 태안의 안면도국제꽃박람회장을 방문하여 충북홍보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년 제천에서 개최될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의원들은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홍보리플릿과 수지침 펜 등을 나눠주며 한방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내년에 꼭 제천을 방문해 '제천국제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박종갑 위원장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불거리, 길거리가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다음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공의 핵심요인"이라며 "내년 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도 한방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제천이 한방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의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상임위에 상정된 권광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박영웅 의원의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경환 의원의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다.



▲ 홍보활동 5월 12일 충남 태안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장을 찾아 내년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홍보를 위해 수지침 펜과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있다.

건설문화위원회

도민체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관 및 선수단 격려

건설문화위원회(위원장 이언구)는 제 28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 48회 충북도민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도민체전이 만남과 화합, 스포츠 축제의 장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열린 「2009 안면도 국제 꽃 박람회」 방문에서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현황, 관광마케팅 운영실태 등을 살펴보고 우리도의 관광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비교·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충북홍보관을 방문하여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 자리

에서 의원들은 관광객들에게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개최와 오송 첨단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홍보를 펼쳐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이어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린 제천 종합운동장을 방문하여 개회식을 참관하고 24개 종목의 시군 대항전으로 경기를 펼치는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그리고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하는 우리도 대표선수단을 방문·격려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 전국생활체전 참관 5월 22일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한 충북선수단을 방문 격려한 후 선수단 입장을 관람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 청원안내 ◆

제출방법 |

-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 도의회 의원 소개의 견서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 주소, 성명 기재, 서명, 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제출사항 |

- 피해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 요구
- 법률·명령·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문의안내 |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43-220-5151

◆ 민원안내 ◆

제출방법 |

- 우편민원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로 158(문화동)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방문제출 : 충청북도의회 의사담당관실(신관 6층)
- 인터넷민원 : <http://assem.cb21.net>의 「도민발언대」에 글쓰기

민원문의 |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43-220-5151

제출사항 |

- 진정이나 일반민원 제출시에는 별도의 의원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달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

◆ 방청안내 ◆

방청권 교부 |

- 방청인은 의회사무처에서 교부 받은 방청권에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하여 신청

방청문의 |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43-220-5155

세무상식

상가를 처음으로 분양받았는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상가를 분양받았으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에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간이고세자로 신청할 것인지, 일반과세자로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간이고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결정이 되었다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토지에 대한 계산서와 건물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앞서 말한 간이고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간이고세자는 사업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의 분양의 경우 건물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일부사업자가 간이고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지가 궁금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즉 6개월간의 공급대가 쉽게 말하면 월세로 받는 금액이 일천이백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의 6개월의 월세가 일천이백만원이면 일백만원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천이백만원미만의 적은 매출금액에도 부가가치세부담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② 법인 등기부등본
- ③ 정관
- ④ 주주명세서
- ⑤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⑥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개인의 경우

-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 ②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③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
- ④ 2인이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조운배 - 세무사>

사과를 먹다

시인 문근석

잘 익은 사과를 몇 알 샀습니다.

어린 시절 저녁 먹으라고 부르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군침이 돕니다.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자란 사과가

색깔도 맛도 좋다고

혹한기 지나 태풍을 견뎌 키워낸 한 알 한 알이

어머니의 눈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개가 진주를 만들듯 눈물도

오래 응고되면 보석이 되나 봅니다.

나는 어머니를, 이 달콤한,

세월로 담금질된 어머니를

한입 베어 씹니다

건강상식

한약을 먹으면 살찐다?

한의원에 오기는 왔는데 한약 먹고 살 찌는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분명히 알아보고 사실이 어떤지도 분명히 알아두어야겠다. 주로 한약을 먹으면 입맛이 좋아지니 많이 먹게 되고 그러면 살찌는 것 아니냐고 많이들 생각한다.

이 말이 듣기에는 아주 그럴 듯하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보자.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 식욕이 없는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비판해지는가? 그것도 아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키에 알맞은 체중을 유지하면서 식욕도 좋으며 적당히 먹고 나면 배가 불러 자연히 과식을 하지 않게 된다. 반면에 살찌는 사람들 중에는 식욕이 좋다가보다 식욕항진이라는 증세가 있어 절제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과식을 하고 있으며, 시장기를 비정상적으로 빨리 느껴 간식을 자주 하게 된다.

한약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입맛이 없는 사람은 위장이 식은 것이니 다시 활동적으로 되도록 도와주고, 앞서 말했듯 식욕이 지나치게 좋고 허기가 잘 지는 사람은 위장이 달아올라 있는 것이니 이를 바로잡아서 식욕항진이 없어지고 허기지도 않게 하여 과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것이 한약이다.

체격에 있어서도 아원 사람도 뚱뚱한 사람도 정상이 아니니 보통 체격이 되도록 도와주는 게 한약이지, 아원 사람이 한약 먹고 뚱뚱해진다든지 뚱뚱하던 사람이 한약 먹고 말라깽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한약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줘도 아직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위에 보니 한약인가 보약인가를 열마춤 먹고 난 뒤로 밥을 막 먹더니 결국 뚱뚱해졌다는 사람들이 몇몇 있더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틀

린 한약을 잘못 써서 위장이 달아오르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막힌 도랑에 물 붓기 격으로 뻥뻥한 위장(습울)에 걸쭉한 보혈제(사물탕, 육미지황탕 등)를 남용한다면 위장이 더 달아올라 식욕항진이 되기도 하겠다.

또한 산후에 기운이 없다고 정확한 진단 없이 개소주나 흑염소를 무분별하게 복용한다면 그것 또한 비만의 원인이 된다. 원래 흑염소나 개소주는 고단백 식품으로 못 먹던 시절에 주로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환자에 따라 비만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비전문인이라면 몰라도 정식 6년제 교육을 받은 한의사라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들이 좋다고 나도 좋겠지 하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한약을 복용하는 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또한 비판해지기 쉬운 환경이다. 음식이 풍족하고 어릴 때부터 육식을 많이 하며 간식을 즐기고, 더구나 복잡한 세상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위장이 달아올라 과식을 하기 십상이다. 이런 환경을

한약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환경으로 바꿔주면 건강해질 것이고 비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담) 일반적으로 보약은 봄·가을에 먹고 여름철은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여름엔 약기운이 땀으로 다 빠져나가 효험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여름철에 마시는 술은 절대로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도 먹어서 땀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을 유추해보면 냉장고가 없었던 옛날에는 여름철에 약재나 탕약의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체력소모가 많은 여름과 겨울이 오기전인 봄가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보약을 먹었던 것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름철이라고 특별히 한약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믿기에 앞서 차분히 생각해보면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온다. <박현웅 - 한의사>

법률상식

개인회생과 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경우 장래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는 개인회생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는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채무인 경우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받아들여지면 월급에서 부양가족까지 포함한 최저생계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은 빚을 갚는데 사용하게 되며,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내지 5년간 착실히 변제를 해 나가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개략적인 흐름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제출)→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개시결정(신청일 부터 1개월 이내)→채권 이의 기간(개시결정일 부터 2개월 이내)→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 부터 3개월 이내)→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의 수행→면책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최저 변제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최저 변제액은 총금액의 5%이고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저 변제액은 총금액의 3%에 100만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단, 최저 변제액은 어떤 경우에도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파산이란 사업실패, 보증 등으로 파

산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이 파산 신청을 하여 파산 선고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하며 개인 회생과 달리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면책 신청을 할 수도 있으며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이 면책 제도입니다.

파산의 개략적 흐름은 파산선고→파산관재인 선임→파산채권의 조사, 확정→파산재단의 관리, 환가→배당절차로 진행됩니다(대부분의 채무자는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게 됨).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법적 제한(사법상 후견인, 수탁자 등이 될 수 없으며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간호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음) 및 경제적 활동 제한(신원 증명서에 기재되어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해방됩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자는 복권되고 공, 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절차상의 이행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경우 및 정책적 사유로 7년 이내에 파산절차상의 면책 또는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국희 - 변호사>

窓邊客談 창변객담

밤차有罪?

1962년, 경제개발1차5개년계획 수립 당시의 우리나라 인구증가율을 추정치는 2.9%였다. 많은 인구에 비해 가용자원과 산업자본이 부족했던 처지에 빈곤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던 혁명정부에 2.9%라는 인구증가율은 큰 부담이었다. 경제개발계획에 인구증가 억제책이 포함된 건 당연한 수순. 식량자급이 어려워 양곡도입은 물론,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들어오는 사료용 옥수수가루로 죽을 쑤어 학교 아이들의 점심급식을 하던 때이니 먹는 입을 줄이는 것도 굶주림을 면하는 한 방편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주도의 가족계획운동으로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81년에는 인구증가율을 1.5%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식물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산아제한인 셈이었다.

각 단단위로 1명씩 가족계획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지역별 산아제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이 동원 되었다. 피임약보급, 폐서리 사용, 월경주기 계산법,

콘돔 보급, 정관수술 등 부부 어느 쪽을 가리지 않고 상담요원이 달려붙어 설득작전을 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구호가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면서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바람에 곳곳에서 웃지못할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 시절, 일화 한 토막. 기차길 양편으로 옹기종기 집들이 들어선 시골 마을을 방문한 면서기가 이장과 함께 골목을 지나다 외글대는 아이들을 보고 한마디 했다.

'이 동네는 왜 이리 애들이 많아?'
'밤기차 덕이지.'

'기차가 밤중에 아이들을 실어다 싣아 놓기라도 하는가?'

'그게 아니고, 들일에 고단한 사람들이라 초저녁부터 끌어떨어질거 아닌가? 그러다 한밤중 동네 복판을 지나느라 기차소리에 잠을 깬단 말이지. 밤중에 잠 깬 내외가 할 일이 뭐겠나?'

'할 일이야 많겠지, 가마니를 치던가, 담배겨치를 치던가...'

'그게 아니지. 애들 잠 깨기 전에 내외가 한바탕 해지우는 거지. 그러니 마누라

쟁이들 뱃속에 뭘 새 없이 애가 들어설 밖에. 또 날기도 쑥쑥 잘들 날거든. 발 매다가 아이고 배야 하고 집에 들어가서 애 낳고, 설거지 하다가도 털썩 애를 쏟아내고... 이 동네 마누라쟁이들은 다 그러...'

'그놈의 밤기차가 화근일세. 이장이 계몽을 많이 해야겠네. 아낙들한테 피임기구를 쓰라던가 아니면 남편들에게 장화를 신으라고 하던가... 나라에서 무상으로 주는 걸 왜 안 쓰나?'

'이 사람야. 애들 몰래 슬쩍 해지우는 일인데 언제 배 놓고 감 놓고 상 차릴 새가 있나?'

'이장이 그렇게 책임감이 없으니까 먹는 식솔만 늘어나고 가난을 못 면하지. 지금은 다산(多産)이 복이 아니라 가난의 화근일세. 좀 더 적극적으로 계몽을 하게나.'

'그런 소리 말게. 자식들마다 다 복덩이고, 저 먹을 것 타고 난다네. 그리고 내외간이 이불 속에서 벌이는 공사를 내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무책임한 이장과 업무에 충실한 면서기의 공방전에 어떤 판정을 내려야할지, 40여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었다. '100억 수출, 1000불 소득이 국가

의 소망이요 국민의 소망이었던 당시와는 격세지감이 들 만큼 세상이 변하고 민심이 변했기 때문이다. 수출은 수백 배, 국민소득은 20 배 가까이 늘었다. 소망대로 가난을 면하고 복지는 향상 되었으나, 인구조절문제는 그냥 남았다. 정부시책과 역행하는 민심도 그대로다.

산아제한을 강권(?)하던 정부시책은 다산장려로 바뀌었는데, 밤기차 핑계대고 다산을 강행하던 민심은 산아억제로 바뀌었다. 양자가 서로 거꾸로 변한 것이다. 불럭처럼 무한정 뻗어들이는 양육비, 교육비공포가 신세대 부부들의 출산의욕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대 가임여성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3명이지만, 실제 출산율은 1.19 명 뿐 이란다. 이대로라면 초고령사회로, 노인들만 많고 근로기능인구가 모자라는 기형구조가 불가피하다. 먹일 것조차 모자라는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복덩이로 알던 선대들의 다산의식이 아쉽다. 국운을 걸고 산아제한을 밀어붙이던 그때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이 시급하다. 이 시대의 밤기차는 결코 유죄가 아니다.

<安秀吉 - 소설가>

건설문화위원회



이기동 의원 (음성 제1선거구)

5월 27일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국민운동 출범식에 참석, 현안 청취 및 관계자 격려



한창동 의원 (청원 제1선거구)

5월 11일~12일 청원군 문의면 구룡리에 있는 다자녀가정과 가덕면 한계리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



이연구 의원 (충주 제1선거구)

6월 16일 충주 후랜드 리호텔에서 '충주도 관광이대론 안된다'란 주제로 실시될 제3차 정책토론회 개최주관으로 분주



김범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5월 22일~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09년 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개최식에 참석, 선수단 및 관계자 격려



김인수 의원 (보은 제1선거구)

5월 13일~15일 제천시와 충북도청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도민제천 및 보은동부산업단지 협약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김하수 의원 (단양 제1선거구)

5월 22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09년 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및 23일~29일 단양군 일원에서 열린 소백산 철쭉제 행사에 참여, 관계자 격려



오용식 의원 (괴산 제2선거구)

5월 13일 괴산군 괴산중학교에서 열린 괴산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준공식에 참석,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관계자와 환담



이규완 의원 (옥천 제1선거구)

5월 1일 옥천읍 옥천군청 광장에서 열린 금오 직거래 장터 개관식에 참석, 관계자 및 행사 참여능가 격려

행정소방위원회



조영재 의원 (영동 제2선거구)

5월 9일 제8회 매곡면 민화합체육대회 및 경로잔치에 참석, 축사 및 지역사회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연만흠 의원 (중평 제2선거구)

5월 1일 증평군 도안면 도안초등학교에서 열린 어린이체육대회에 참석, 축사 및 미래창조의 주역이 되어 주길 당부



강대원 의원 (한나라당)

5월 22일~24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2009년 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에 충청북도검도연합회장으로 참석, 활성화 방안의 견수렴 및 토의



김환동 의원 (괴산 제1선거구)

5월 10일 괴산군 청천면에서 열린 전통시장한마당축제에 참석,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박재국 의원 (청주 제4선거구)

5월 9일 청주시 수곡동 한솔초등학교에서 열린 수곡1·2동 노인경로잔치에 참석, 관계자 및 지역 발전에 혼신을 다해주시는 어르신들의 노고 격려



이필용 의원 (음성 제2선거구)

5월 31일 음성군 감곡면 극동대학교에서 열린 음성군 의용소방대원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에 대한 토의



장주식 의원 (진천 제1선거구)

5월 11일 진천군 진천읍 진천향교추계대제에 참석, 충효와 유교이념을 기리며 지역의 번영과 도민의 안녕을 기원



최광욱 의원 (한나라당)

5월 29일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저출산 대응 포럼에 참석, 저출산 관련 발제 및 토론



최계옥 의원 (중평 제1선거구)

5월 19일 증평군 증평읍사무소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증평군지부 결성식에 참석, 참석자 환담 및 여론청취



임 현 의원 (영동 제1선거구)

5월 17일 영동군 군민운동장에서 열린 제18회 영동군 직장단체친선축구대회에 참석, 관계자 및 참석자 격려



최미애 의원 (민주당)

5월 19일 청주시 봉명동 청마투에서 열린 가정법률상담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관계자 및 참석자 격려



김광수 의원 (청주 제1선거구)

5월 30일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충청북도 보육시설교사 연합회에 참석, 보육정책강의 및 참석자와 토론



이범윤 의원 (단양 제2선거구)

5월 11일 단양군 가곡초·중학교 및 별방초·중학교 통합학교 개교식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 여론수렴



이중호 의원 (제천 제1선거구)

5월 18일 제천시청에서 열린 2010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 실행계획 중간 보고회에 참석, 실행계획 논의 및 관계자 격려



정윤숙 의원 (청주 제5선거구)

5월 23일 청원군 주성대학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3740지구협의회에 참석, 참석자 격려 및 주요사업 협의

산업경제위원회



이영복 의원 (보은 제2선거구)

5월 23일 보은읍에서 열린 삼산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관계자 격려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민 동참 당부



박중갑 의원 (청원 제2선거구)

5월 8일 청원군 남일면 가산리 인근에서 열린 녹색축산전진대회에 참석, 경제위기와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로·격려



권광택 의원 (청주 제6선거구)

5월 19일~6월 5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충청북도 및 도교육청의 2008회계연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



민경환 의원 (제천 제2선거구)

5월 17일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세계인의 날 행사에 참석, 외국인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사회통합분위기 조성에 애쓰는 관계자 격려



박영웅 의원 (옥천 제2선거구)

5월 20일 옥천읍 금구리에서 열린 남부영어체험센터 개관식에 참석, 외국어체험교육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당부



송은섭 의원 (진천 제2선거구)

5월 19일 음성군 대소면 수박연구소 개소식에 참석, 축사 및 진천군 수박농가 지원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 신제품 개발·육성을 통한 농업명품도 조기정착을 당부



심홍섭 의원 (충주 제2선거구)

5월 9일 청주시 호암동 택견전수관에서 열린 충청북도택견연합회장기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고유무술 택견의 발전과 대중화 당부 및 관계자 격려

